

[보도자료]

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한국오가논, 2025 년 세계 성건강의 날 맞아, “청소년 성평등 한 줄 공모전” 개최

- 7 월 28 일(월)부터 8 월 20 일(수)까지 공모전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2025 년 세계 성건강의 날 주제 “Sexual Justice: What Can We Do?” 기반, 공모전 통해 청소년 시선에서 출발하는 성적 정의 및 성형평성 실현하는 첫걸음 기대

서울, 2025 년 7 월 28 일 -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(상임대표 이명화, 이하 한성협)와 한국오가논(대표 김소은)은 세계 성건강의 날을 맞아 2025 년 7 월 28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평등과 성건강을 주제로 한 줄 메시지를 공모하는 『2025 세계 성건강의 날 맞이 청소년 성평등 한 줄 공모전』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세계 성건강의 날(World Sexual Health Day)은 세계성건강학회(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, WAS)가 성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0 년부터 매년 9 월 4 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. 세계 각국에서는 이날을 맞아 성건강 증진과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2025 년 세계 성건강의 날 주제인 “Sexual Justice: What Can We Do?”에 기반해 “함께 쓰는 정의롭고 평등한 성문화, 그 한 문장의 주인공은 너야”라는 메시지를 담았다. 이는 청소년이 성건강과 성평등의 주체로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,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건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평등한 성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했다.

현재 청소년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디지털 기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졌다. 여성가족부에 따르면, 10 대를 노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최근 6 년 사이 26 배 급증했으며,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례인 ‘딥페이크’와 ‘자경단’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60%, 68%가 아동·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범죄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3 명 중 1 명이 10 대 청소년인 상황에서도 성교육 경험률은 전체 중고등학생의 73.2%에 불과하다. 청소년이 성에 대해 질문하고, 표현하고,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언어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‘성적 정의(Sexual Justice)’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, 청소년의 권리이자 삶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.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에 던지는 작은 문장이자, 성건강한 사회를 향한 첫 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.

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18 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'세이프루언서 3 기' 소속 청소년 약 200 명과 더불어, 만 10 세부터 18 세까지 일반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. 참가자들은 성평등과 성건강을 주제로 한 울림 있는 한 줄 메시지와 그 뜻을 설명해 제출하면 된다.

접수는 2025 년 7 월 28 일(월)부터 8 월 20 일(수)까지 온라인(공모전 포스터 내 QR 코드로 접속)을 통해 진행되며, 결과 발표는 9 월 4 일(목)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공식 블로그(<https://cseinkorea.tistory.com/>)를 통해 이루어진다.

수상작에는 ▲대상(부문별 1 명, 각 30 만원 상당의 상금 혹은 상품) ▲우수상(부문별 4 명, 각 5 만원 상당의 상금 혹은 상품) ▲참가상(추첨 100 명, 5 천원 상당 기프티콘)이 수여되며, 선정작은 PDF 소책자로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이다.

이명화 상임대표는 “청소년들이 바라는 성평등과 성건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하고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.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확산되어 가정·학교·사회 등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환경이 촉진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한국오가는 김소은 대표는 “정의롭고 평등한 성문화는 우리 각자의 생각과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지고, 이는 우리 사회의 현재이면서 또 미래가 된다.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여정의 시작이자 중심에 있어야 함에, 이번 공모전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, 이후 이러한 목소리들이 사회 곳곳에 울려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한성협과 한국오가는 2023 년부터 청소년 성건강 역량 강화를 위해 세이프루언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, 올해로 3 기를 맞이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 20 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와 164 회의 사각지대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.

###

2025년 세계 성건강의 날 맞이
청소년 성평등 한 줄 공모전

Sexual Justice: What Can We Do?

함께 쓰는 정의롭고 평등한 성문화, 그 한 문장의 주인공은 너야

2025. 7. 28.(월) ~ 8. 20.(수)

공모대상

- ① '세이프루언서 3기' 청소년
- ② 일반 청소년 (만 10~18세)

공모내용

성평등과 성건강을 주제로 한
울림 있는 한 줄 메시지
(이미지와 뜻 설명 포함)

공모일정

접수기간 : 2025. 7. 28.(월) ~ 8. 20.(수)
결과발표 : 2025. 9. 4.(목)

응모방법

QR코드 스캔 또는
설문 링크 접속 후 작성 제출

설문링크

<https://bit.ly/성평등한줄>

시상내역

※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※수상작은 2차 콘텐츠(PDF자료집)로 재가공 예정이며, 「2025년 제2회 성교육의 날」 슬로건으로 활용될 수 있음

구분	시상 내역	시상 인원
대상	3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 / 상장	총 2명 [세이프루언서 3기 1명, 일반 청소년 1명]
우수상	5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 / 상장	총 8명 [세이프루언서 3기 4명, 일반 청소년 4명]
참가상	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기프트콘 증정	총 100명

*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사업 안내문 참조

저작권
AV

후원
ORGANON

[사진] 2025년 세계 성건강의 날 맞이 "청소년 성평등 한 줄 공모전" 포스터